“佛法 의지해 정진”…수덕사 선출가학교 입재

9월 12일 대웅전서 입재식
1기 출가학교에 13명 입교
열흘간 출가생활 체험 진행
권역별 출가학교 ‘첫 결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덕숭총림 수덕사는 9월 12일 대웅전에서 제1기 선출가학교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번 선출가학교에는 남행자 6명, 여행자 7명이 입교했다.

근현대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허·만공 스님의 참선수행도량에서 열흘간 출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선(禪)출가학교’가 문을 열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9월 12일 대웅전에서 제1기 선출가학교 입재식을 봉행했다. 선출가학교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남행자 6명과 여행자 7명이 입교했다. 고불식에 앞서 심우당에서 열린 삭발 의식에서는 네 명의 행자가 삭발에 동참했고, 다른 행자들은 부분 삭발을 하며 초발심을 새겼다.

고불식에서 행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주지 도신 스님은 인사말에서 “열흘간의 출가살이가 쉽지 않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며 “스스로를 등불 삼아 정진한다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반드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가수행의 힘을 길러 평생의 자산으로 삼고, 나아가 사회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선출가학교는 템플스테이가 아닌 실제 행자 생활을 온전히 체험하는 도량”이라며 “예불과 발우공양, 울력과 참선, 간경과 염불의 일상은 수행자의 삶이 얼마나 장엄하고 자유로운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흘간의 정진이 번뇌를 이기고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특별위원장 정범 스님이 청규를 시달하자 행자들은 청규를 독송하며 수행 규범을 지킬 것을 다짐했다.

전주에서 온 유동섭(65) 행자는 “교직에서 정년 퇴임하고 경허·만공 스님의 선맥이 살아 있는 도량에서 행자복을 입으니 감회가 깊다”며 “앞으로 국제포교사로서 불법 전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삭발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머리를 깎고 싶다는 마음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심(33) 행자는 이미 출가를 결심한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불교에서 ‘내가 없으면서 편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 선수련회에 참여했다”며 “참선과 법문 속에서 진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 체험이 더 큰 발심으로 이어져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삭발식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순간 “가족은 소중하지만, 그것만이 내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찾아 왔다”는 그는 “앞으로 나를 다스려 타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출가자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행자들은 둘째 날부터 새벽 3시에 기상해 예불·참선·108배, 울력과 교리 강의, 불교 예절·염불·명상 실습 등에 참여한다. 또 정혜사 능인선원·견성암·간월암 등을 참배하고, 회향 전날에는 삼보일배 정진을 하게 된다.

수덕사 선출가학교는 조계종이 교구본사 차원으로 운영하는 권역별 단기출가학교의 첫 사례다. 이어 송광사를 비롯해 내년까지 10개 권역의 교구본사에서 출가학교를 순차적으로 개설해 출가 진흥에 나설 예정이다.

울산 덕원사, 제2회 반려동물 천도재

9월 14일 대웅전서…650여 축생 영가 왕생 발원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 스님)는 9월 14일 대웅전에서 ‘제2회 반려동물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불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동참해 먼저 세상을 떠난 반려견과 반려묘 등 650여 축생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남은 이들의 평안을 기원했다.

주지 덕원 스님은 법문에서 “먼저 떠난 반려동물이 육도윤회를 거쳐 더 나은 생명으로 태어나길 발원한다”며 “불자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생명의 존엄을 새기고 자비와 평안이 일상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도재에 동참한 한 시민은 “불자가 아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며 “종교를 떠나 반려동물과의 인연을 기리고 싶어 참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덕원사는 앞으로 반려동물 천도재를 정례화해 생명존중과 자비의 가치를 전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담양 용흥사, 제2기 불교대학 입학식

9월 14일 대웅전서, 25명 입학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는 9월 14일 대웅전에서 불교대학 제2기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입학식에는 주지이자 불교대학장인 덕유 스님과 학감 지호 스님, 교수사 능견·형진 스님을 비롯해 신입생 25명이 함께했다.

덕유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 당시 불교 교단과 사찰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돌아보고 오늘의 불교대학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관계를 배우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흥사 불교대학은 지난해 7월 조계종의 인가를 받아 같은 해 9월 첫 입학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함평 용천사, 호남 최초 꽃무릇 자연장 개장

8월 25일 경내 일주문 인근
600평 규모로… 600기 안치
선양 통한 신앙 전승 기대


8월 25일 함평군의 정식 허가를 받고 개장한 용천사 꽃무릇자연장 조감도.

호남 최초의 수목장이 함평에 문을 열었다.

함평 용천사(주지 혜용 스님)는 8월 25일 경내 일주문 인근에 600평 규모의 ‘용천사 꽃무릇 자연장’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개장에 따라 600기 안치가 가능하며, 현재 100여 기의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주지 혜용 스님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꽃무릇 자연장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추석 무렵 꽃무릇이 절묘하게 피어나고, 겨울에도 청초한 잎이 돋아 있어 사계절 성묘와 휴식이 가능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개장 소감을 밝혔다.

이어 “탈종교화 시대에 사찰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도와 자연스럽게 연계해 인연을 잇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친환경적인 자연장은 조상과 부모를 모심으로써 신앙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동시에 사찰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연장 부지에는 호랑가시나무, 동백나무, 은목서가 식재돼 있다. 특히 은목서는 가을마다 하얀 꽃을 피우고 수백 미터에 이르는 향기를 내뿜어 참배객들에게 위안을 전한다. 안치 방법은 자연친화적인 종이함이나 황토함을 활용해 5~10년 내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도록 했으며, 용천사는 100년의 보장 기간을 두고 분양을 시행한다.

묘지석은 10cm 이하로 소규모 설치해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했으며, 안치된 영가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백중, 명절마다 공동 제사와 천도재가 봉행된다. 향후 용천사는 가족 단위 템플스테이와 명절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용천사는 이번 자연장을 직영하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신도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아울러 농업법인을 설립해 지역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는 된장 등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혜용 스님은 “자연장은 단순한 장묘 공간이 아니라 치유와 힐링의 숲이자 지역사회와 불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사찰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모색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어르신 섬김 효잔치

지역 어르신 120명 초청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는 9월 17일 쌍봉사 마당에서 신도회(회장 장미선), 섬김봉사단과 반찬봉사단(회장 김진옥)과 함께 진안읍내 어르신 120명을 초청해 ‘어르신 섬김 효잔치’를 개최했다.〈사진〉

올해로 11번째 열리고 있는 이날 행사는 쌍봉사 만복의 소리 숟가락 장단, 노래교실 김은숙 선생님, 주채연 가수 등의 공연과 어르신들의 노래자랑 등으로 흥겨운 잔치 한마당이 펼쳐졌다.

주지 보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자식들도 부모님 걱정을 내려놓고 생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노인복지관·자원봉사센터 MOU

관내 ‘주거 인프라 돌봄’ 서비스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도형 스님)과 고창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옥)는 9월 15일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 서비스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해 △밑반찬 배달 △주거 청소 △생활환경 정비 등 일상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형 스님은 “이번 협약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통해 진정한 ‘함께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불교법왕청, ‘마하평화봉사대상’ 시상

9월 17일 서울 HW컨벤션센터서
자비나눔 실천 공로 50여명 수상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총재 목탁 스님)는 9월 17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불교 마하 평화봉사대상 시상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시상식은 ‘지구촌 어두운 곳에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주제로 200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또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인사를 맡고 있는 마하사 주지 자운 스님과 비로암 주지 월암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연합회 상운법현 스님, 보현사 신협 이사장 야허 스님 등 100여 스님이 참석했다.‘세계불교 마하 평화봉사대상’은 세계 각지에서 빈곤 구제, 의료 복지, 평화 증진, 교육 지원 등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한 이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의 인증이 부여되며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게 된다.

총재 목탁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구촌 모두가 화합과 포용, 자비와 평등으로 하나 되는 세계불교를 선언한다”고 밝히며 “이 상은 봉사와 인류애를 삶 속에 실천한 분들에게 바치는 찬탄의 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불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법왕청 설립 원력이 싹트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자운 스님, 청명 스님, 혜정 스님, 월암 스님, 법원 스님, 심오 스님, 현담 스님, 법성 스님, 성운 스님, 대공 스님, 정인 스님, 대도 스님, 우진 스님 등이 승가상을 수상했다. 또 이호, 황영주 회장을 비롯하여 김재은 의전원장, 이정희 의전2원장, 최연호 봉사회장 등 재가불자들이 재가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노덕현 기자

‘보살계 수계’로 봉사단 ‘20돌’ 기념하다

청주 지장사, 14일 수계법회
청주불자봉사단 20주년 기념



청주 지장사(주지 설몽 스님)는 9월 14일 대웅전 앞 금강계단에서 청주불자봉사단(단장 이진희)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증명삼사는 전계대화상 허허지명 대종사(법주사 조실), 교수아사리 금우 석담 대종사(법주사 박물관장), 갈마아사리 무설 현진 스님(청주불교방송 사장)이 맡고 설몽 스님(지장사 주지), 덕현 스님(마야사), 원철 스님(월리사 주지) 등이 10증사로 올랐다.

이날 법회에는 청주불자봉사단원과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해 보살계를 수지하고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지명 대종사는 법문에서 “보살계는 수행의 사다리이자 생사의 강을 건너는 배와 같다”며 “청주불자봉사단이 20년 동안 이어온 급식 봉사는 중생과 함께하는 보살행의 모범”이라고 치하했다.

동참 대중은 참회진언을 합송하며 연비로 서원을 다졌다. 수계증은 참석 대중을 대표해 갈세현, 정은숙 불자 등 4인이 대표로 수여했다.

수계식에 이어 열린 청주불자봉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은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창립 이후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여옥순, 김미수, 김영애 불자에게 이범석 청주시장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주지 설몽 스님은 축사에서 “불자들이 앞으로도 자비와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울산 벽선암, 개산대재·생전예수재 회향

9월 14일, 송백숲 일원서



울산 벽선암(주지 혜진 스님)은 9월 14일 경내 송백숲에서 창건 84주 개산대재 및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는 땅설법 법주 다여 스님의 특별축원과 봉송의식으로 진행됐으며 산사음악회에서는 문화공양주 자명 스님 등이 공연을 펼쳤다.

주지 혜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창건 84주년을 맞아 불교 의식과 문화공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